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14(상림동 60)

2025년 1월 24일(금) 제 3025호

道-전북국회의원 조찬간담회 2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올해 첫 조찬간담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과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전북도>

전북 핵심간선 교통망 14개 사업 건설 예타대상 선정

전주 외곽 순환망 완성… '상관~색장' 등 총 14개 대상
정체 해소·급커브 등 불량구간 개선, 물류 이동성 강화
기재부 예타 통과 목표…대응 및 정책성 강화 전략 주효

전북자치도는 핵심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14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착수해 후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이 중 타당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사업을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의 14개 사업은 기획재정부 전문연구기관(KDI, 조세연구원 등)을 통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받을 예정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최종 입증될 경우 12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으로 확정·고시된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완주 상관~전주 색장(국대도) 사업'은 전주 외곽 순환망 51.7km 중 미개설 구간인 4.1km(총사업비 1천804억)를 연결해 순환망을 완성하는 핵심 구간이다. '완주 소양~진안 부귀(국도26호선, 보용재) 사업'은 동부권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구간은 선형 불량과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3.0km 구간에 총사업비 698억을 투입,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통행 제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 백구~공덕 및 공덕~군산 대야(국도21호) 사업'은 총연장 15.4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천5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읍 칠보~임실 덕치(국도30호) 사업' 등 10개 사업은 이동 시간 단축 및 교통비 절감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차로, 급경사, 급커브 등의 위험 구간을 개선 사고 발생률을 줄이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21년부터 '전북 도로분야 국가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과 경제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이러한 준비 끝에 14개 사업이 일괄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향후 정책성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책성 분석 대응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완주·전주 거점도시형 통합 권고 '속도'

행정안전부 미래위,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확정 발표
시군 통합 시기별 차등 재정지원…빠른 통합 시 더 많은 지원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개편 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해 김관영 도지사가 제시한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민선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응한 자치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위를 출범시켰다. 이어 따라 지난 22일 인구구조, 경제구조, 교통·통신, 지방재정 측면에서 향후 20년 이상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시군통합,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 8개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이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 배분, 기관설치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고 전주와 완주의 생활인구는 평균 96만명, 최대 104만명에 달해 광역시와 비슷한 정도의 지역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특례시 인구 기준인 100만에 못미쳐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완주·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전주·완주를 잇는 SOC 등 독자적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에 전북 미래위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50만 명으로 낮추고, 거점 기능 수행 여부와 시군 통합 가능성을 고려하는 정성적 기준 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특례시가 권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도의 권한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도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관련 시군에 제안해 놓은 상황으로 이런 재정지원 방안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관 기자

전북-지역 정치권, 새해 첫 협치로 지역 발전 새 지평

전북자치도-전북 국회의원 을사년 첫 조찬 간담회
국가예산 확보와 도정 현안 등 협력방안 논의

전북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이 전북자치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올해 첫 협치 회의를 가졌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올해 첫 조찬간담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과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9조2천244억원을 확보한 성과를 설명하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새만금국제공항, 이차전지 신산업,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핵심 사업의 월활한 추진을 위해 정치권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언급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북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은 비수도권 연대를 중심으로 국가균형 발전 모멘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의 국내 후보도시 선정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도와 국회의원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예산과 관련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의 추가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도정과 정치권 간 협치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및 2025년 국가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한 추경시 추가 반영,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동시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은 28일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최종 선정된다. /서울=김영묵 기자

<社 告>

독자 제현께 알립니다

전북타임스는 설 연휴를 맞아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휴간에 들어간 뒤 2월 3일 자에 신문을 발행합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휴식을 취한 뒤 신속성과 정확성에 기반해 제작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소식과 콘텐츠를 들고 다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을사년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북타임스 임직원 일동 세배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전북도-대학, 글로컬대학30 성공적 추진 협력

도-라이즈사업단장, 교육부 글로컬대학 신규 공모 대응 협의 등 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혁신안 마련

전북자치도가 새해 시작과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 추진과 글로컬대학30 신규 공모 대응에 발벗고 나섰다.

도는 23일 전북혁신도시 소재 JB지산학협력단 회의실에서 도-대학 라이즈사업단장, 기획처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5년 본격 추진되는 라이즈(RISE) 사업의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2년 연속 선정된 교육부 최대 재정지원 사업인 '글로컬대학30' 공모 선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은 고등교육과 관련한 최대 현안이다.

전북도는 올초 라이즈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며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신규 공모 일정도 전날 발표됨에 따라 현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학과 소통의 자리를 갖게됐다.

도는 지난해 지자체-대학-산업계와 30여 회가 넘는 간담회, 공청회,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 라이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김관영 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교육계, 지자체, 산업계, 혁신기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라이즈위원회에서 4대 프로젝트 12대 단위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글로컬대학은 '23년 전북대, '24년 원광대+원광보건대(통합형)에 이어 또 하나의 쾌거 달성을 노리고 있다.

전체 30개 대학을 선정하는 글로컬대학은 지난 2년간 20개 대학을 선정했고 나머지 10개 대학을 올해 전부 선정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은 기존 20개 대학과의 차별화된 주제를 발굴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된 혁신적인 기획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 요소다. 앞으로 공모기간 동안 도와 대학이 함께 지역 특화분야와 연계해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은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올해도 라이즈(RISE)의 성공적인 추진과 글로컬대학 신규 선정을 위해 대학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재경전북도민회, 소통 간담회 열어

전북자치도, 출향 도민과의 소통 강화 협력 방안 적극 모색

전북자치도는 지난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재경전북자치도민회와 함께 출향도민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창희 도 정무수석,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과 곽영길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장 등 출향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자치도의 향후 비전과 주요 사업들이 소개됐으며 특히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같은 도정의 중점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출향도민과의 교류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도 제시됐다.

주요 계획으로는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출향도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합회 구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출향도민들의 도정 참여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곽영길 도민회장은 "전북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창희 정무수석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도전에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전북사랑도민증을 활성화해 자발적으로 출향도민들이 함께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전북의 맥, 전북사람 2편'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빛나는 도서관 사업 일환, 도내 시군 어른들 삶의 이야기 담아…소중한 문화자원 전승 발전

전북자치도는 2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한병태 전북도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어른, 가족, 집필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의 맥, 전북 사람 2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립국악원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어른과 집필진의 책 집필 소감 발표, 생애구술사 전달식,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의 맥, 전북 사람'은 전북도의 빛나는 도서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로, 지역 어른들의 삶과 지혜를 기록해 전북의 전통과 문화를 미래 세대와 지역사회에 남기는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두 번째 출판물에는 도내 14개 시군의 어른 14분의 삶의 이야기가 담겼는데 그 주인공들은 ▲전주 기접놀이보존회 임양원 ▲군산 침선장 임순옥 ▲익산 모필장 곽종민 ▲정읍 줄풍류 정칠환 ▲남원 혼불도요 장태성 ▲김제 악기장 송재권 ▲완주 농악 손현배 ▲진안 응사 박정오 ▲무주 액막이놀이 전승 유재두 ▲장수 녹반석벼루장 고태봉 ▲임실 한지 외발뜨기 지장 김일수 ▲순창 장승 명인 윤흥관 ▲고창 고수자기 장인 나희술 ▲부안 뽕잎바지락죽 명인 김인경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전북의 전통과 문화를 기록하고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산업지구 지정, 전북 문학예술인회관 및 대표도서관 건립 등 새로운 문화산업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출판된 14종의 생애구술사 책자는 도내 14개 시군의 도서관 및 문화원 등에 배부되며 전북자치도 누리집(www.jeonbuk.go.kr)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돼 도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박희승 의원,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해야"

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은 22일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악순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이원택 의원, 농지비 부과율 상향 '농협조합법 개정안' 발의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은 22일 농업지원사업비 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비 부과의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 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 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지비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지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23.7%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2024년 9월 말 기준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3천151억원으로 이미 2023년 당기순이익인 2조2천343억원보다 높았다.

반면, 농가의 농업소득은 정체된 상태이며 많은 회원조합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쌀값 하락 등으로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오현숙 도의원, 새만금 사업 어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패류 양식업 및 맨손어업 어민들의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한국수산경영인전북연합회이 주최한 '새만금 패류 양식업 및 맨손어업 어민' 간담회가 22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그간의 보고서와 어민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새만금 외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리하고 원인을 규명해 지속가능한 새만금 해양환경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 보자는 취지다.

사례발표를 맡은 김근오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위원장은 새만금 사업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보고서 검토를 통해 새만금의 해수유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호내 수질은 친환경적인 배수갑문 운영을 통해 새만금에서 이뤄지는 해수유통량을 늘리는 것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유기만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새만금 사업지역은 방조제,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로만 돼 있어 방조제 밖은 새만금법상 관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숙 의원은 "새만금 사업에 의한 어민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환경시민단체, 어민단체 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방식으로 구성하고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관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25 - 192호

정읍 치유농업클러스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정읍 치유농업클러스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정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 01. 24
정 읍 시 장

1. 정읍 치유농업클러스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안)
○ 사 업 명 : 정읍 치유농업클러스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1번지 일원
○ 면 적 : 104,040㎡
○ 주요시설 : 치유농업센터, 치유정원, 치유텃밭, 치유온실, 치유카페, 치유쉼터 등
○ 사업시행자 : 정읍시장

2. 정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폐지)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2	공공공지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16-9번지 일원	103,067	감)103,067	-	2013.03.22 (정읍시 고시 제2013-25호)	「국토계획법」 제30조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	정읍 치유농업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1번지 일원	-	증)103,040	103,040	금회	

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실음생략"

3.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 "실음생략"

4.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5년 1월 24일 ~ 2025년 2월 7일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정읍시 기술보급과, 소성면사무소
○ 정보통신망 : 정읍시 홈페이지(https://www.jeongeup.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게재
○ 관련도서 비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서 신청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 등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 제출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제출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정읍시 기술보급과(063-539-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설 명절 장보기 행사 전개

우범기 전주시장, 신중앙시장 찾아 각종 제수용품·먹거리 구매 등 장보기 동참

전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전개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연휴를 앞둔 23일 신중앙시장을 찾아 각종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등 전통시장 홍보에 힘썼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시 각 부서별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설 명절 장보기 행사의 일환으로, 최근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촉진시키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각 부서별로 전주지역 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농수산물 등을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펼친 뒤 상인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특별 할인판매와 환급행사가 오는 2월 10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은 기존 10%에서 15%로 할인율이 상향됐으며, 사용 금액의 15%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많이 이용해 달라"면서 "앞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확대하는 등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 완산구, 2025년 5대 추진 방향에 행정력 '집중'

신년 브리핑서 적극행정·공감복지·시민안전·생태환경·상생경제 5가지 추진 방향 및 15개 핵심 목표 제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전주 대변혁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실현해나가는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지속적인 변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23일 열린 완산구청 신년 브리핑을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정 운영의 5대 기본방향과 15개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변화와 혁신,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을 슬로건으로 한 5대 기본방향은 ▲신뢰와 소통으로 다가가는 '적극행정' ▲모두 같이하는 '공감복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시민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환경' ▲더욱 성장하는 '상생경제'이다.

먼저 구는 신뢰와 소통으로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 가까이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추진 ▲투명하고 청렴한 신뢰행정을 구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현장 속에서 답을 찾는 동장 중심 현장 순찰제를 운영하고, 구민 중심의 주민자치프로그램과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구 토지대장의 디지털화와 지적재조사 지구 경계설정 전 감정평가액 사전 안내 및 현장설명제를 추진한다.

또한 구는 모두 같이 하는 공감복지'를 목표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맞춤형 복지 실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구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조성하는 등 소외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완산구의 복지 체계를 강화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재해 없는 완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생활 속 체계적인 안전 기반 시설 조성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위생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구는 재난재해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주기적인 예찰활동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또, 안전기반시설을 더 탄탄히 관리하고, 선제적 위생관리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전주시 완산구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동시에 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구축 ▲도심의 쉼터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자연과 시민이 하나되는 생태하천 관리 강화를 추진, 더욱 쾌적한 완산을 만들기로 했다.

끝으로 구는 더욱 성장하는 '상생경제' 구현을 위해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정확하고 탄탄한 세정서비스 운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는 내실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사후관리 등 민생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2025년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귀성객·관광객 위해 시설 개방 및 문화행사 마련

전주지역 문화시설별 특색 있는 전통놀이 체험과 공연행사 운영 예정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시가 설 연휴를 맞아 전주를 찾는 귀성객들과 가족 단위 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조선의 본향 태조 이성계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경기전과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전라감영,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전주대사습청 등 문화관광시설들을 정상 운영하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다채로운 설 연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전주대사습청에서는 설맞이 브랜드공연인 단막창극이 운영되고, 우리놀이터 마루달과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는 설 연휴 프로그램과 기획상품전이 운영되는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에서는 푸른뱀의 해를 맞아 뱀키링 만들기와 입춘첩 장식하기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설 연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세시풍속 체험 마당 및 가족영화관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지공예체험과 수공예체험, 쌀강정 만들기 체험이 펼쳐지고, 전주천년한지관에서는 전통한지 뜨기 체험 등 전주 고유의 매력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전통행사들이 운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한옥마을 주요시설의 점검 및 환경정비를 실시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설 연휴 기간 대한민국 문화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를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즐거운 즐길거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축제의 도시 전주, 풍성한 볼거리가 있는 전주를 만들어 문화가 산업으로 도약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승화원 추모객 위한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주승화원을 찾는 추모객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 교통 대책과 장사시설 일제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성묘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근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연휴 운영 기간을 당초 3일에서 1일 늘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효자공원묘지를 찾는 추모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출입로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설 당일에는 일방통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 대책으로는 효자공원내 야외주차장 400대와 유연로변500대 등 총 90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상태다.

승화원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정상 운영되며, 화장장의 경우 설 당일인 29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시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고인의 사진 등록과 차례상, 헌화, 추모글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추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금안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시설 관리와 추모객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연휴 기간 모든 추모객이 보다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관영 도지사, 격포항수산시장 화재 지원논의

전북자치도는 지난 22일 김관영 도지사가 격포항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21일 오후 11시 14분경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약 1억3천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1층의 11개 점포가 소실됐고 1층의 8개 점포와 2층 식당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특히 수족관, 냉장고 및 어패류 등의 손실이 커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도와 부안군은 이번 화재 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고 부안군은 예비비를 활용해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수산물 시장 설치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피해 점포 운영자들에게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10억원 규모의 영조물 보험을 통해 재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 점포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점포별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안군과 협력해 상인들의 빠른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도, '설 명절 해상교통 특별수송' 추진

시청 및 구청에 각각 비상상황실 운영·취약지역 순찰 강화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군산과 부안의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연안여객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송대책은 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수송대책반을 구성한다.

대책반은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접안시설 및 터미널의 안전과 방역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장과 선원 등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및 해상 사고 대비 안전 교육을 실시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과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객선 운항 횟수를 임시로 증회해 수송 능력을 확대하고, 공용 주차장 및 공휴일을 활용해 임시 주차장을 확보해 해상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 연휴 동안 도내 5개 항로와 3개 선사가 운영한 여객선을 이용한 승객은 3천364명으로, 올해는 하루 평균 564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10일 연휴 동안 5,64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들이 여객선과 터미널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주동물원, 연휴기간 정상운영‥주차장 무료 개방도

전주시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전주시민들이 가족과 명절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날 당일을 포함해 연휴 6일간 휴무 없이 전주동물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주동물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은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특히 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설 연휴를 맞아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를 찾은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동물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동물원 내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동물사와 관람로를 정비하는 등 쾌적한 관람환경을 준비했다.

동물원 내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도 연휴 기간 휴장 없이 정상 운영한다.

김종대 전주동물원장은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아온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전주동물원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5년간 설 연휴 하루 평균 7건 발생

부주의 원인…화재 예방 대비해야

전북 도내에서 지난 5년간 설 연휴에 하루 평균 7건 가량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설 명절 연휴 기간 도내에서 총 210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10억8천9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등 순이었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늘 내달 3일까지 전 직원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며 모든 소방 장비가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화재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화재 위험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설 명절 맞아 군 장병 위문 격려

35사단 전주대대·항공대대 방문, 군장병들에 감사의 마음 전해

우범기 전주시장이 설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찾아 격려했다.

우범기 시장은 23일 35사단 전주대대와 206항공대대, 506항공대대 등 전주지역 군부대를 차례로 방문해 향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향토방위라는 막중한 임무와 더불어 전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군부대 방문을 통해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며 업무 공조 체계를 견고히 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道,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 밑그림 그렸다

현장전문가 등 참여 제1차 사회적경제위원회 개최…향후 5년 중장기 발전 목표·방향 설정

4대 추진전략·12대 중점과제·87개 사업 통한 중장기 비전 제시

전북자치도가 23일 2025년 제1차 사회적경제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훈 경제부지사, 양춘제 (사)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제2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근거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연구원 용역을 통해 수립된 이 계획에는 정부 정책 변화 속에서 전북형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기본계획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강화 ▲지역사회 문제해결 대응력 확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실천력 향상 ▲사회적경제 협력·지원 체계 확충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북자치도가 23일 제1차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87개의 세부사업을 도출했으며, 신규사업 발굴과 민간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전북형 사회적가치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기조와 재정여건을 고려해 5개년 계획을 2년+3년 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인 2025년과 2026년에는 타 부처 정책사업 등을 활용한 정부정책 기조 대응력을, 2단계인 이후 3개년은 정책에 따른 실행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계획 심의와 함께 분과위원회 신설 등 사회적경제위원회 재구성 계획과 전북형 사회적경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한편 도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2025년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모바일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독려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전북투어패스 1일권 지급

전북자치도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이 '모바일 전북사랑도민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도는 전북 외 타지역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연고자 등을 대상으로 전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문과 소비를 촉진하며, 도정 홍보 와 교류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하고 있다.

신청은 모바일과 컴퓨터에서 '전북사랑도민'을 검색해 공식 누리집(lovecard.jb.go.kr)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QR코드를 스캔해 접속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 후 주소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전북사랑도민증 신청자는 전북투어패스 1일권을 지급 받아 도내 투어패스 가맹점인 카페, 식당, 숙박시설, 관광지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내 방문 및 소비 실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회 이상 인증하면 전북투어패스 2일권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어, 전북 방문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예정이다.

또한, 전북사랑도민증 소지자는 도내 할인가맹점 43개소에서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 목록은 전북사랑도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통해 타 지역 거주자와 전북의 연결을 강화하고 방문 인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와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벼 재배 농업인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논물관리 등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시 활동비 지급…올해 참여 대상 농지 20ha 이상으로 확대

전북자치도는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신청자를 지난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의 탄소 배출 저감 활동을 이행한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으로, 논농업을 경영하며 20ha 이상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다.

지원 기준에 따른 활동비는 ▲중간물 떼기가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 대기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은 ha당 36.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가을갈이는 ha당 46만원을 지원하며 하반기인 8월에 신청·접수 할 계획이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본 시범사업은 최소 50ha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참여 대상을 20ha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활동으로 '가을갈이'를 추가해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참여 범위를 넓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과 생산자 단체는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농업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내 벼 재배 농업인들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자치도, '한국관광 100선'에 전주한옥마을 등 관광명소 8곳 등재

전북 대표 관광지들, 계절별 비경 돋보이는 자연과 힐링 체험·역사적 가치·전통 어우러진 명소 인정받아

전북자치도의 대표 관광지 8곳이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다.

선정된 관광지는 ▲전주 한옥마을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남원 관광단지&광한루원 ▲완주 오성한옥마을 ▲진안 마이산도립공원 ▲무주 반디랜드&태권도원 ▲순창 강천산군립공원 ▲부안 변산반도이다.

'한국관광 100선'은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꼭 방문해야할 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이번 2025~2026 선정은 7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선정은 누리소통망(SNS)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3차례에 걸친 관광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2013년 첫 선정 이후 7회 연속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그 명성을 이어갔다.

또한 진안 마이산도립공원과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은 각각 6회 연속 선정되며 전북을 대표하는 자연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부안 변산반도는 자연과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으며 청정지역 무주에 위치한 태권도원은 웰니스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태권도 시범 공연 관람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남원관광단지는 춘향테마파크, 국립민속국악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항공우주천문대 등 다채로운 휴양문화시설이 갖추어진 관광지이다. 순창 강천산은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뿐 아니라 설경과 아름다운 현수교로 계절마다 독특한 매력을 제공하고 있다.

완주 오성한옥마을은 전통한옥 20여 채가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있으며, 카페, 갤러리, 숲속 체험길 등이 조화를 이루는 힐링 명소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연과 전통, 문화가 조화로운 전북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소장단 우수사례 공유 연찬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5 KOPIA 소장단 연찬회'를 개최했다.

올해 연찬회는 성과 공유 차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세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전략적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농업기술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와 케이(K)-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 빈곤 퇴치(SDG 1)와 기아 종식(SDG 2)에 기여하는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날(22일)에는 KOPIA 우간다, 몽골, 파키스탄 센터가 2024년에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농민협동조합을 연계해 벼 보급종 생산과 보급 동반 상승(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농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해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OPIA 소장단 연찬회를 개최했다.

KOPIA 몽골 센터는 조사료 자급률을 100% 달성하고, 소 생산성도 57%까지 끌어올려 농가소득 증대(25%) 효과를 거뒀다. KOPIA 파키스탄 센터는 무병 씨감자 자급 체계구축 기반 시설을 확충해 사업 지속성을 강화했다.

둘째 날(23일)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로 나눠 총 15개 나라 KOPIA 센터의 사업 성과를 한자리에서 공유하며, 각 센터의 우수사례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24일)에는 현지에 적합한 우리나라 우수 농기자재를 선발해 하나로 묶어(패키지화) 수출하는 '케이(K)-농업기술 묶음(패키지) 수출 사례'를 소개했다.

농촌진흥청은 KOPIA 사업 확장과 혁신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협력국과의 지속 가능한 농업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준호 기자

전주페이퍼, 설 맞이 어려운 이웃에 생활용품 나눔

지역 대표기업 전주페이퍼(공장장 이무재)가 지난 23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진행했다. 보육원, 경로당, 인근마을 주민 등 총 15개 단체에 쌀, 선물세트, 김, 복사지, 노트 등 천여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전주페이퍼는 해마다 지역의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며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사원들이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도움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주위의 어려운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페이퍼는 설날, 추석은 물론 인근마을과 자매결연 행사 및 야유회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조손가정 14세대와 결연을 맺고 매월 꾸준하게 지원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적십자사, 도내 자립준비청년에 상품권 3천만원 지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자립준비청년 15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3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리브영이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2억원을 기부했고 그중 전북은 3천만원을 배분받아 도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전달했다.

한편, 도내에는 해마다 약 150여명의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을 나와 혼자 생활을 하며, 대한적십자사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을 위해 밀키트 및 생필품 지원,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자조모임과 같은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설 연휴 서울↔전주간 귀경 30일 오후 가장 밀려

귀성 28일 7~13시, 귀경 설 다음날(30일) 12~18시 혼잡 예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설 명절은 임시공휴일(27일)을 포함한 6일간의 긴 연휴로 귀성·귀경객뿐 아니라 나들이객의 이동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29일 설 당일 전북권 고속도로는 최대 46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2일 도공 전북본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에 따르면 귀성은 설 전날(28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날(30일) 오후에 가장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서울→전주)은 5시간 50분, 귀경(전주→서울)은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해안선 및 통영대전선 일부 구간에는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휴게소에 임시화장실 추가 설치 및 직원용 화장실을 개방할 예정이다. 더불어, 명절기간 동안 관내 휴게소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떡 나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24일 호남선 여산(순천)휴게소는 방문차량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준호 기자

전북 직업계고 학생 45명,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국가직 지역인재 14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28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3명 등

전북 직업계고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대거 합격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 45명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합격자는 국가직 지역인재(9급) 14명,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28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3명 등이다.

국가직 지역인재는 직렬별로 ▲일반행정 4명 ▲전기 3명 ▲일반기계 2명▲세무·관세·산림자원·일반토목·일반농업 각 1명씩 합격했다. 전북자치도 지방직은 직렬별로 ▲일반토목 11명 ▲일반농업 9명 ▲건축 4명 ▲일반기계 2명 ▲일반전기·보건 각 1명이 합격했다.

전북교육청 지방직 공무원 합격자는 ▲건축 2명 ▲일반전기 1명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국가직 지역인재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면접특강을 통해 면접시험 대응력을 높이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무원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최성민 기자

전주기전대, 혁신도시 제2캠퍼스 문 열다

혁신융합캠퍼스 통해 공공기관 · 지역산업체 연계 프로그램 추진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위치한 혁신융합캠퍼스에서 개소식을 알렸다.

이번 개소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윤수봉 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혁신융합캠퍼스는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5,692㎡ 부지에 조성됐다.

전주기전대학은 혁신융합캠퍼스를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2025학년도 중 ·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개최…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침 개정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중고등학교 새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해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정안을 논의한다.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사항 및 학교자율시간 활용 교육감 승인 과목 심의 절차 정비 ▲국가교육위원회 고시에서 개정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사항 수정 등의 내용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차기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와 학점 배당 결과 제출 시기 조정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필수 이수 학점 감축 등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구위원을 구성해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후 2월 초에 중·고등학교 새 교육과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개정되는 교육과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단위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율성과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지침 안내 및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 · 특별교육기관 공개모집

학교폭력 전담기관 2곳, 피해학생 전문상담기관 22곳,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21곳, 성(딥페이크) 관련 교육기관 6곳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폭력 피해(위기)학생 치유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가해학생 교육적 선도를 위해 내달 5일까지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과 특별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학교폭력 전담기관 2곳, 피해학생 전문상담기관 22곳,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21곳, 성(딥페이크) 관련 교육기관 6곳 등이다. 이들 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피해학생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 가해학생 특별교육 등 주어진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와 Wee센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경찰학교 등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공개모집 결과는 내달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서울장학숙 입사생·전북지역 고교생 '선후배와의 만남' 멘토링 개최

입시·대학 생활 등 노하우 공유…선후배 간 우의 다졌다

전북자치도서울장학숙(관장 김관수)은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도내 14개 시군 남녀 고교생 22명을 서울장학숙으로 초청, 입사생과 숙박을 같이 하며 '선후배와의 만남' 멘토링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장학숙 입사생으로 구성된 35명의 멘토들은 22명의 고교생 멘티들과 함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방문, 대학 캠퍼스 안내를 하며 자기주도학습법 등 입시와 대학 생활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고교생 멘티들과 공유했다. 또한 롯데월드, 경복궁 등 서울 곳곳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선후배 간 우의를 다졌다.

입사생 멘토 주정현 군(고려대 국어교육 2)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 후배들을 만나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서 "이번 행사가 고향 후배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멘토링 행사에 참여한 허환오 군(해성고 1)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향 선배들의 귀중한 경험을 배워 무척 기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선배들로부터 많은 학습조언과 경험을 듣고 배워 보람이 컸다"고 전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선후배와의 만남' 멘토링 행사를 진행했다.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 · 특별교육기관 공개모집

학교폭력 전담기관 2곳, 피해학생 전문상담기관 22곳,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21곳, 성(딥페이크) 관련 교육기관 6곳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폭력 피해(위기)학생 치유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가해학생 교육적 선도를 위해 내달 5일까지 학교폭력 전문상담기관과 특별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학교폭력 전담기관 2곳, 피해학생 전문상담기관 22곳,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21곳, 성(딥페이크) 관련 교육기관 6곳 등이다. 이들 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피해학생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 가해학생 특별교육 등 주어진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와 Wee센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경찰학교 등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공개모집 결과는 내달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설 연휴 학교 등 주차장 개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설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주차장이 개방되는 교육기관은 일선 학교 710곳을 포함해 본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739곳이다.

연휴 기간 학교 등 교육기관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전북교육청 누리집(http://www.jbe.go.kr) 공지사항에서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을 확인하면 된다.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학교 출입 시 안전사고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따라 평소에도 도민들에게 주차장을 적극 개방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정광운 교수팀, 열전달 소재 개발… 국제학술지 게재

정광운 교수

형재석 연구원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 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 연구팀의 형재석 대학원생이 웨어러블 기기의 방열 소재로 응용이 가능한 바이오매스 기반 신축성 열전달 소재를 개발해 세계적 학술지에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전자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존의 고분자 소재는 열전도도가 낮아 복합재료를 제작할 경우 열전달 성능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열전도성이 우수한 '메조겐'을 자연고무 고분자에 결합해 합성함으로써 열전도도가 향상된 고분자 소재 개발에 성공했고, 복합재료의 열전달 특성을 효율적으로 향상시켰다.

연구팀이 개발한 열전도성 고분자 소재는 자연고무를 기반으로 뛰어난 신축성과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이 신축성 열전달 소재는 미래 전자산업에서 주목받는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돼 우수한 열관리 소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재료과학분야에서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스몰(Small, IF=13, 상위 7.9%)'의 지난 15일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최성민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설 맞아 복지시설·단체에 위문품 전달

정읍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23일 시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767곳과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정애마을 등 취약계층 525세대에게 1억 20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덕천면에 위치한 섬김의집요양원과 상교동의 늘푸른실버홈에 직접 방문해 백미(10kg) 15포와 사과, 한라봉을 포함한 과일 16박스를 전달하며 온정을 더했다. 현장에서는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시는 매년 설 명절과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위문품 전달 역시 그 연장선에서 시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설 맞이 종합대책 추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마련… 분야별 상황실 운영 및 현장 점검 지속

군산시가 2025년 설을 맞아 2025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종합대책의 추진 배경은 명절 기간 재난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시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 등을 우선 살피고, 물가 안정, 민생 지원 및 격차 해소, 안전 관리에 역점을 두기 위해 각 분야 별로 세분화해 진행할 계획이다.

[민원대응분야] 먼저 민원 대응에서는 오는 27일~30일까지 운영하는 120 종합상황실이 눈에 띈다. 도로, 교통, 하수, 수도, 청소, 환경, 식품, 보건 8개 분야의 민원 접수를 맡게 될 16여 명의 근무자가 매일 투입될 예정이다.

1월 25일~2월 2일까지는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도 운영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유료 공영주차장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민생경제분야] 군산시는 설 명절 대목을 맞아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비심리 촉진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인다.

지난 15일부터 운영 중인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은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며, 기간 동안 성수품 가격 동향 파악 및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점검 및 물가 안정 현장 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지난 20일부터 군산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도 상향했다. 기존 40만 원을 50만 원으로 올렸으며, 모바일·카드 상품권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적립해 소비를 한층 독려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병행된다. 주공시장, 공설시장, 신영신장 등 에서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시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안전 분야] 안전총괄과가 운영하는 재난·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종합상황실도 함께 운영된다. 24시간 상시 재난 대응 체제 유지 및 재난 발생 상황 시 신속 접수 및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특별감시반 및 상황실 운영은 환경정책과가 맡는다. 운영은 내달 4일까지이며, 대기, 폐수, 악취 다량 배출 오염·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고 및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신속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2층 상황실도 설 연휴 동안 운영된다.

[보건복지분야] 군산시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료에 대한 사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군산시청 및 보건소 누리집,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시행

한방 치료로 건강한 기억을 지키는 맞춤형 예방 솔루션

군산시 보건소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을 위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시행한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전통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매 예방 사업으로, 군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치매 발병률을 낮추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한의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치매로의 이환을 예방하고, 치매 증상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단 군산시는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 저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 1인 최대 70만 원까지 한의 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월 1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의 치매 예방관리사업과 기타 치매 관련 내용은 군산시치매안심센터(454-5870)에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새해 첫 소통의 장 '공감소통간담회' 개최

읍면동장 참석… 신태인읍 '동진강 꽃길 따라 가족걷기 행사' 등 논의

정읍시가 새해 첫 소통의 장을 열며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공감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 목표를 공유하고 읍면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를 통해 ▲신태인읍의 '동진강 꽃길 따라 가족걷기 행사' ▲북면의 '남고학당 예절학교 프로그램' 확대 ▲이평면의 '감사해효(孝) 꾸러미' 지원 ▲칠보면의 '동부권 행복공작소' 운영 ▲수성동의 '양심화단 조성' ▲농소동의 '추억의 사진전' 등 총 46개 사업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기별 확대 간부회의와 주요사업장 현장 소통행정을 병행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설날엔 익산, 역사와 전통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익산시가 설을 맞아 역사와 전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여행을 준비했다.

시는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익산시민역사기록관과 왕도역사관을 개관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우선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하 기록관)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정상 운영하며 설 당일인 29일은 휴관한다.

기록관은 지난해 12월 개관한 기록문화 공간으로 ▲시민역사기록관 ▲기록실감창고 ▲기록우체국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이 2021년부터 기증한 9,000여 점의 기록물을 전시·교육·체험으로 만날 수 있다. 시는 연휴 기간 엽서에 소원을 적어 우체통에 넣어두면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딱지치기, 고리 던지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준비할 예정이다.

왕도역사관은 오는 25~30일 왕궁면 백제왕궁박물관, 금마면 마한박물관, 웅포면 입점리고분전시관을 모두 개관하고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을 운영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경제 살리는 익산 다이로움, 역대급 혜택

2022~2024년 최근 3년 간 할인 혜택 1인당 최대 448만 원…도내 평균 크게 웃돌아

익산시 대표 효자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이 시민들에게 독보적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북 도내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비교한 결과 2022~2024년 최근 3년간 익산시가 1인당 최대 448만 원의 할인 혜택을 지원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도내 평균인 215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차순위 309만 원보다도 높아 단연 눈에 띈다. 발행량 또한 1조 5,653억 원으로 도내 최대 규모다.

실제 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다이로움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했다. 또 기본할인율 10%에 소비촉진지원금 10%를 더해 최대 2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적용한 바 있다.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감축 지침에 따라 할인율이 일괄 10% 이하로 조정되면서, 시는 이를 극복하고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시는 할인율을 최대 한도인 10%로 유지하는 한편 추가 10%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지원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도 사상 초유의 국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발행 목표를 도내 최대 규모인 4,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충전 시 주어지는 할인율 10%를 기존과 같이 연중 적용한다.

다이로움의 효과는 단순히 시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가 2021년 8월 진행한 '다이로움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용역'을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 3년간 다이로움을 통해 7,818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출된 경제 효과 7,818억 원에 다이로움 발행액인 1조 5,653억 원을 더하면 총 2조 3,471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킨 셈이다.

시는 다이로움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도 민생 회복 정책으로 다이로움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정책과 연계해 다이로움 결제 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정책지원 가맹점을 다이로움 택시와 치킨로드까지 확대한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으로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다이로움 포인트 1만 원을 지급하고, 익산몰과 탑마루 등 다이로움이 가맹된 온라인몰에서도 명절 물품을 살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경로당 식사도우미' 어르신 건강 지킨다

익산시가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23일 마동 시영아파트 경로당과 금강동 강경경로당을 방문해 식사도우미 운영 상황을 살폈다.

시는 경로당 이용자의 식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주 5일 10명 이상 식사하는 경로당 100개소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00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정헌율 시장은 어르신들의 점심을 세심히 챙기며, 식사뿐만 아니라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논의됨에 따라 식사를 활용한 노인 건강 증진과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경로당 식사 준비 지원을 최우선 사항으로 판단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신속한 식사도우미 배치에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주 5일 식사하는 경로당 380개소 중 10명 이상 식사하는 경로당 100개소에 우선적으로 식사도우미를 지원했다.

시는 부식비 지원 여부와 경로당의 수요 등을 고려해 식사도우미 추가 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민선 8기 정읍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개최

1월 정기 인사발령 연계… 올해 추진 사업 철저한 준비 · 점검 기회 제공

정읍시가 민선 8기의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신속한 정책 방향 설정과 속도감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이학수 시장 주재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1월 정기 인사발령과 연계해 부서장들이 올해 추진할 사업을 철저히 준비·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보고회에는 새로 부임한 유호연 부시장이 배석하고 국장, 부서장 및 팀장 전체가 참여해 부서 간 협력과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이 자리를 통해 정읍시는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핵심사업 ▲일반사업 ▲공약사업 등 총 375건의 사업을 보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대상 사업으로는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반 조성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농촌협약사업 ▲연지동 뉴빌리지 공모사업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정읍역~정읍천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정읍 스포츠 타운 조성 ▲아양산 목조전망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 비전을 명확히 하고 주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 시민 중심의 혁신 행정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설날 한마당 큰잔치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2025년 설 연휴 동안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설날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한다.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펼쳐지는 큰잔치에는 풍물놀이, 가훈 써주기, 마술, 저글링, 캐리커처 등 다양한 행사 및 체험이 열려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과 이웃한 근대미술관에서는 박물관 소장품전 '너머의 세계', 장미갤러리에서는 신춘자 작가의 '자기랑 나랑'과 故 하반영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설날 당일(29일)에는 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하여 많은 귀성객 및 시민들이 박물관에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026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총사업비 1조 7,740억 원… 전북진로융합교육원 설립 등 신규사업 47건 발굴

익산시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강영석 부시장 주재로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 발굴 사업과 지난해 미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사업 발굴에 집중해 왔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을 모색한 결과 총사업비 1조 7,74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47건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업은 ▲전북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웅포곰개나루 관광지 수상관광 활성화사업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등이다.

시는 내달까지 추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난해 미반영된 사업들은 논리와 타당성을 보완해 오는 3월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이 확정되면 중앙 부처를 조기 방문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복지시설 종사자 명절 복지수당 지급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129개소 종사자 11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2013년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 예산으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복지수당을 지급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기존 현금 지급 방식을 정읍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변경해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랑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는 2021년 도내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에 가입하고 본인부담금 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수교육비 및 국내연수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복지수당 지급과 관련 정책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시의 따뜻한 행정을 실천하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시, 2025년 주요 업무 보고회 열어

주요 핵심사업 추진 박차…'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실현 방안 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정성주 시장 주재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조직개편에 이후 처음 진행되는 보고회로 지난 2024년 시정 운영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핵심사업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핵심사업은 141건으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지원 ▲망해사 일원 국가 명승지 조성사업 ▲지평선 제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백구 일반산업단지(제2 특장차) 조성사업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김제시 유치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모악산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시범사업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주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정성주 시장 주재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5년에는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실현을 위해 더 특별한 마음으로 성장을 넘어 성공으로, 최선을 넘어 최고를 향해 나아가겠다"라며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혼란스러운 여러 상황에 편승하지 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해달라"며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민생경제회복 정책과 국가예산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올해 첫 출생아 가정에 축하금 전달

권 군수 친필 출생축하카드·축하금 3백만원 전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일 태어난 올해 첫 출생아 가정에 출생축하카드와 출생축하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출생축하카드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권익현 부안군수의 친필을 담은 메시지 카드이고 출생축하금은 자녀 수에 따라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출생축하금 외에도 첫만남이용권 최대 300만원, 마더박스(임신축하용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 실천협약 기관인 부안군산림조합에서는 출생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부안에 주소지를 둔 관내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축하 우리아이 생애 첫 통장을 개설해 주고 출생축하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부안군 출생아 수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53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군 관계자는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생활인구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총괄하면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자원봉사대학, 신입생 모집 2월 7일까지 신청 가능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설 자원봉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25 김제자원봉사대학'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오는 2월 7일까지 김제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gimjevoluntee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025 김제자원봉사대학은 오는 2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에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탄소중립 관련 전문 지식과 자원봉사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예정이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갈 전문 자원봉사 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청년창업 패키지 및 청년1번가 참가자 모집

고창군이 지역 대표 청년사업중 하나인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과 '청년1번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의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해당된다.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가(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또는 업력 5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개인 또는 법인)이다.

'청년1번가'는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교육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창군 특산품 또는 농수축산 생산품을 을 전시,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들이 고창에서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1+1 이벤트' 진행

3억원 달성시까지…50명 추첨해 추가 답례품 및 상하농원 숙박권 제공

고창군이 설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1+1 기부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벤트는 연휴 시작일인 오는 25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3억원(올해 기준) 달성시까지 진행된다.

고창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한 기부자 50명을 추첨해 기존 답례품 외에 추가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또한 3억원 달성시 기부한 1명에게는 3억달성 기념 특별선물로 상하농원 숙박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지역 특산품인 고창쌀, 고창풍천장어, 고창땅콩, 고창고구마, 고창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한 지정기부 사업으로 '고창의 별 육성사업 시즌1-영선고 야구부 지원', '고창 청소년 앞날창창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창형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설맞이 1+1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도 하시고 혜택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란다"면서 "모금된 기금은 고창군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3일 지난해 12월 12일'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수차례에 걸쳐 추진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재배면적 축소가 아닌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와 공공비축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행복드림반, 취약계층 불편 해결 '호응'

취약계층 31세대 방문, 누전차단기 교체 등 거주지 불편 사항 100여건 해결

부안군 행복드림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31세대를 방문해 100여건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며 온정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는 전기 누전차단기 교체, 고장 난 전등 수리, 누수되는 수도꼭지 교체 등 주민들의 거주지 불편 사항을 직접 해결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의 낡은 전등과 수도꼭지를 교체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드림반과 지역 전기·설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6명이 함께 한 이번 활동은 단순한 수리 작업을 넘어 주민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행복드림반이 군민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선물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복드림반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1955건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며 생활 속 해결사로 자리매김 했다.

행복드림반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기관장협의회, 관내 군 장병 위문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29개 기관장으로 구성된 부안군기관장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관내 부안대대, 공군부대 등을 직접 방문해 지역의 방위·안전 등을 책임지는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권익현 군수는 "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쉼 없이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 장병 등이 있기에 매우 든든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 등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부대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고향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격려해 주시는 부안군 기관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농업분야 보조사업 '한눈에'…QR코드 제공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업기술센터가 2025년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QR코드를 제공으로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QR코드는 6개 과의 농업분야 보조사업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찾지 못하거나, 신청·접수기간을 놓쳐 적기에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했다.

이 QR코드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농업분야 보조사업 179개의 신청기간, 사업비, 사업량, 지원대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기술, 청년창업농 문의 등 농업 관련 정보를 통틀어 제공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농업인들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사업을 파악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배너 설치,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게재, SNS 등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QR코드를 활용한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 시책을 발굴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설 명절 물가안적 특별대책 추진

물가대책반 편성·16개 품목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점검

고창군이 주요 성수품의 가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물가종합상황실을 오는 28일까지 운영하며, 물가대책반(5개 반)을 편성·운영해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농산물 4종, 축산물 4종, 수산물6종, 임산물 2종)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관리하고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16개 성수품 품목 가격정보 및 고창군 생활물가정보를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소비의 지침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물가대책반은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불법유통 등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명절 기간동안 기존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단, 지류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했다.

또한 고창사랑상품권 구매 시 선할인 10%에 카드형 상품권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 10%를 후캐시백으로 지원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유지해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도울 전망이다.

그리고, 설 대비 가격이 급등한 수산물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27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물가종합상황실 운영 및 명절기간 중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설 명절 맞이 분야별 대책 마련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6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종합대책 근무반을 편성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안전, 교통, 물가, 환경, 상수도, 보건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교통 혼잡과 정체를 줄이기 위해 주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해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로변, 터미널, 주요 관광지의 위생상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동파 및 누수 사고 등 긴급한 상수도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긴급복구반 편성·운영하고,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 대책 종합 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시, 설 연휴 종합대책 가동

응급의료·교통 대책 등 종합상황실 운영…민관 합동 물가 단속반 현장점검
청소 특별반·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시민과 귀성객 편의 강화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시민과 귀성객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보건의료, 교통 대책, 도로 복구 등 7개 반으로 구성되며, 재난 예방 활동 및 사건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 의료기관(남원의료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과 경기 침체로 인해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설 연휴 전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수축산물 20개 품목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민관 합동 단속반을 가동,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시는 명절 기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터미널 등 주요 정체 구간에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고, 공영주차장을 개방·운영해 귀성객 및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상습 정체, 병목 구간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 현장 단속반을 운영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손님맞이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설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명절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청소 민원 처리반과 특별상황반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남원시에서는 설명절을 맞이해 남원역과 터미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캠페인과 귀성객 맞이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설맞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인증 5대 맛집' 현판 제막식 열려

현판, 공모전 최우수작 선정 제작…남원 미식관광 기반 마련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남원의 맛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남원시 인증 5대 맛집' ▲그랑깨(돈가스) ▲집밥, 담다(한식) ▲두레식당(오징어볶음) ▲명문제과(제과) ▲정옥추어탕(추어탕) 업소에 대해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현판은 남원의맛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네이밍과 BI 최우수 작품으로 남원의 상징인 광한루 기와지붕과 남원만의 풍미와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그릇에 담아 상징화 했으며, 남원시 인증 5대 맛집 표시 및 식당별 상호를 양각으로 새겨넣어 특별함을 더해 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해 김영태 남원시의장과 남원시외식업지부장 및 업소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선정된 5대 맛집을 춘향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행사와 연계해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 미식관광 사업이 더욱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민생안정지원금 사흘만에 지급률 70.4% 돌파 호응

남원시가 지난 20일부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3일 만에 지급률 70.4%를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동안 전체 대상자 76,801명 중 70.4%에 해당하는 54,068명이 신청을 완료하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원금 신청 첫날 주민 수가 가장 많은 도통동, 향교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담 창구 운영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운봉읍, 동충동, 주생면, 금지면을 찾아 시민공감 열린대화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선불카드 지급은 오는 2월 21일까지며, 올해 6월 30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남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전통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 남원시 공무원 1,000여 명이 참여해 관내 전통시장에서 남원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민생안정지원금 선불카드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설 연휴 7대 분야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

주민 불편사항 신속 대응…물가 특별관리·교통대책상황실·당직의료기관 지정

순창군이 설 연휴를 맞아 군민들과 귀성객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군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안전, 의료, 생활환경 등 7대 분야에 걸친 체계적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군은 연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각종 주민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쓰레기 처리와 상하수도 관리, 교통·물가 대책, 의료 서비스, 재난 대응 등을 총괄하는 상황실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순창사랑 상품권 사용도 적극 권장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귀성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대책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한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비롯해 성묘객들을 위한 대중교통 운행 지도는 물론, 교통사고 취약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군이 설 연휴를 맞아 군민들과 귀성객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서 구급대와 112 순찰차를 활용한 긴급후송체계도 마련했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비상근무 실시

완주군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간 종합대책을 수립 하고,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23일 완주군은 연휴 기간인 6일간 146여 명의 직원들이 종합상황실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종합상황반 ▲재난재해대책반 ▲의료대책반 ▲물가대책상황반 ▲생활환경개선반 ▲환경오염감시반 ▲교통대책반 ▲상하수도대책반 등 8개 반으로 구성돼 주민들의 편의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간 사건·사고 예방 및 비상시 초동대처를 위해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상황관리 안전 태세를 강화한다. 재래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설 연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독감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연휴기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

이외에도 성수식품 위생 점검, 설 전후 '일제 청소의 날' 운영,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터미널 등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비상급수 및 복구반 운영 등 생활 민원처리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긴 연휴간 군민들이 불편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마을버스 운전원 12명 공개 채용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공영마을버스의 전면시행을 위해 일반직 기술 7급 마을버스 운전원 12명을 공개 채용한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년 범위 내 있는 사람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버스운전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최근 10년 내 관련분야에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 안전을 위해 음주와 사고 이력 검토를 강화한다.

주소지도 제한된다.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완주군에 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합산이 총 3년 이상인 사람이 응시 가능하다.

응시원서 공고는 2월 10일까지, 접수 기간은 2월 4일부터 10일까지이며, 이후 필기전형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와 면접 전형을 거쳐 2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은 "공개 채용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력을 채용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공개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홈페이지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전용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광한루원·남원관광지 '한국관광 100선' 선정

남원시가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우수관광지 100곳을 2년에 한번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를 진행한다. 이번 선정은 남원시가 보유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자연경관이 한국 관광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한루원은 '춘향전'의 배경지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원으로써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돌담길 따라 걷는 은은한 빛의 광한루원 돌담길과, 몽환적인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신비로운 광한루원의 밤 풍경은 국내 대표적인 야간 볼거리로 인정받아 2023년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도 선정됐다.

남원관광지는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국립민속국악원과 숙박 및 식음시설이 포진돼 체류형 관광지로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근 함파우유원지에 유아숲체험원, 키즈아트랜드, 달빛정원 등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남원의 대표관광지 광한루원과 연계해, 문화와 예술이 결합한 관광사업의 상호연계성을 높여 남원시 고유의 자원과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예술관광단지 조성을 비전으로 자연권, 예술권, 문화권 등 3개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이번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선정은 남원시의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그리고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올림픽 유치 GBCH 챌린지 참여

지난 22일 최경식 남원시장이 황인홍 무주군수의 지명으로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GBCH 챌린지'에 참여하며 올림픽 전북 유치 열기를 더했다. 이 릴레이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작으로 국내 후보 도시 최종 발표 시점인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남원시는 연말·연시 주요 행사에서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대중교통 홍보이미지 부착, 관내 전광판 광고, 주민 밀접 홍보로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전북도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남원시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계올림픽 유치를 응원하며, 모두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김우석 남원경찰서장을 지목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재천 부의장, 수소용기 신뢰성 평가 센터 실태 지적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22일 전북테크노파크 모니터링센터에서 열린 수소저장용기 운영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며, '수소용기 신뢰성 평가 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해 낱낱이 파악하고 명확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한 완주군 및 전라북도 관계자,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 완주산단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간담회에서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센터가 설립 후 2년이 지나도록 정상 운영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으며, 관리감독 부실, 책임감 부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수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용기 신뢰성 평가 센터의 운영 부진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수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수소용기 신뢰성 평가 센터'는 수소 저장용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기 위해 2022년 3월에 설립됐으나, 현재까지 반복된 성능 개선 공사와 테스트로 인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영아 필요경비 지원금 월 4만원으로 2배 증액

완주군이 영아(1~2세)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부모부담금 지원금을 월 4만 원으로 증액했다.

23일 완주군은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1~2세)의 부모부담금 필요경비 지원금을 기존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군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예산 1억 9,200만 원을 확보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입학금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 840명이 혜택을 받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설 명절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모두 '적합'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과 제수용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전 품목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명절 다소비 농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품목은 채소류 9종, 과일류 8종, 버섯류 3종, 견과 ·종실류 1종 등 총 22품목이며, 각 품목에 대해 463가지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순창군은 종합분석실을 운영하며 친환경 농산물·GAP 인증 또는 중금속 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생산과 유통 농산물, 공공급식 납품 농산물 등 연간 1,200건 이상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순창=박지헌 기자

진안군, 귀농귀촌 동아리 모집 "마을공동체 의식 고양 기대"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선주민과 귀농귀촌인이 만나 다양한 취미활동을 영위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2025년 이웃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에 참가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19세 이상의 진안군민과 귀농귀촌인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분야는 지역봉사, 문화예술, 취미생활, 자기계발, 학술 등 자유롭다. 다만 지역사회공헌 또는 예능나눔 활동 내용을 포함하는 동아리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총 8개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며, 접수는 내달 10일까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refarm_1@naver.com)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후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 선정하며 선정된 동아리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다.

담당자는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의식 고양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동아리활동이 단순 취미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공무원 결연 가정 위문

전춘성 진안군수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아울러 진안군 부군수를 포함한 전 공무원은 1:1 결연가정에 방문 안부확인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 방문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며, 사회복지 일선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영농 안정 위한 필리핀 활동 전개

전춘성 진안군수, 웰프리도 마크 위원장 만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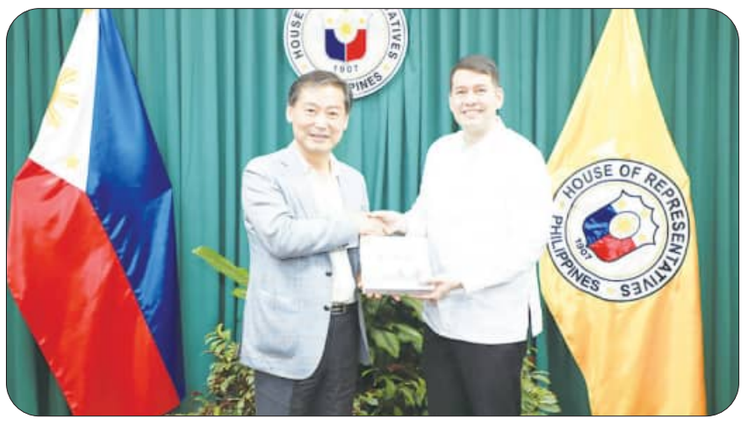
진안군이 관내 영농 농가들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본격 도입을 위해 필리핀의 협약 체결 3개 지자체를 찾아 현지 최종 면접에 나섰다.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현지 면접은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 퀴리노주, 이사벨라주 등 3개 주에서 추진됐으며 사전에 해당 주에 계절 근로 희망자 모집을 요청해 1차 전형을 통과한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 도시인 마갈레스시에는 60명을 모집하는데 180명이 넘게 지원했으며 농가형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인 퀴리노주와 이사벨라주는 412명을 선발하는데 1,50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해 진안군에서의 계절근로자 활동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진안군은 올해 223농가 807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이번 면접에서는 공공형 60명과 농가형 412명을 선발했으며,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335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전춘성 진안군수가 필리핀 케존시티의 하원의원 웰프리도 마크(농업 및 식량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기로 하는 면담을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진안군이 관내 영농 농가들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을 위해 필리핀의 협약 체결 3개 지자체를 찾아 최종 면접에 나섰다.

웰프리도 마크 위원장은 "필리핀 근로자가 외국인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진안군은 지난해 필리핀 해외 이민자 노동청((Department of Migrant Workers)에서 실시한 현지 점검에서도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지자체인 만큼 앞으로도 진안군에 우수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도 좋은 환경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에 우수한 계절 근로자를 영농철 적기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고원김치보쌈축제, 지역특화형 평가 '우수'

2년 연속 우수축제선정, 농특산물 활용 성공적 모델 입증

진안군 대표 맛 축제인 '진안고원김치보쌈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축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되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성공적인 축제 모델로 떠올랐다.

진안고원김치보쌈축제는 지역의 청정 농산물로 만든 김치와 진안 흑돼지를 사용한 보쌈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의 맛과 멋을 결합한 독창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진안YMCA에서 ▲우리집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 ▲즐김장(즐거운김장, 즐기는장) 공연 ▲음식 부스 운영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김치골든벨, 쇼미더 김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는 오는 11월중 개최될 예정이며, 김치와 보쌈을 주제로 한 음식 개발 및 부스판매를 확대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의 만족을 극대화할 프로그램도 추가할 계획이며 김장 용품과 저온창고 대여, 당일 배송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도 대폭 활성화할 방안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본격화

올해 상반기 토지매입 완료·11월 착공 목표, 2027년 개소 예정

장수군이 군정 핵심사업인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팔을 걷어붙인다.

최근 장사문화의 인식 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화장률이 급증하면서 화장 후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이용에 대한 주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장수군 내에는 장사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제한으로 군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관내 장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지역 내 장사시설 조성을 모색했으며 그간 장사시설 조성사업 부지 공모를 통해 계남면 가곡리 일대를 선정, 타당성 용역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군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T·F 팀을 구성해 2025년 상반기 중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올 11월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장사시설을 개소할 전망이다.

최훈식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조성은 늘어나는 화장률에 대비한 필수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연친화적이고 현대적인 공설 장사시설을 조성해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봉안당 조성비용으로 2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국·도비를 확보해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설 명절 기간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임실군이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민원 해결 및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근무자 138명을 배치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재해대책반, 물가대책상황반, 생활환경개선반, 상하수도대책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대책반 7개 분야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불편 없이 가족들과 정겨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연휴 기간에 비상 진료를 실시하는 관내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은 임실군보건의료원(063-640-3110)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쓰레기 특별 수거 등 환경정비와 상하수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에도 생계비 및 물품 지원과 함께 명절 음식 나눔으로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설 명절 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장수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 장수시장과 23일 장계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의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직접 장을 보며 명절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훈식 군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찾아가는 특별홍보' 나서

미래세대 집중투자…10만원 기부·답례품 신청 시 자동응모, 20명 추첨해 임실치즈 제공

임실군이 설 명절을 맞아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임실군표 고향사랑기부금을 집중 홍보하는 감사이벤트와 함께 찾아가는 특별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군은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감사이벤트를 진행하고, 터미널과 역사 등을 찾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이벤트 기간에는 임실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군은 이 중 20명을 추첨해 3만 8천 원 상당의 임실치즈 및 유제품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특별홍보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관내 역사와 터미널 및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임실군 고향사랑기부를 홍보하는 리플릿 등을 배부한다.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경우 20% 할인된 가격으로 치즈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

실제 임실군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이 아닌 3만 8천원 상당의 치즈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고향과 지자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에 고향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기부자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설 명절맞이 이벤트를 통해 기부자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 추진

품질 향상 등 효과…'호응'

무주군이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시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영농작업 후 남은 과수 전지목을 파쇄해 퇴비로 환원한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31일까지 하면 되며 무주군은 이 사업을 통해 불법소각을 줄이는 한편, 산불 및 병해충 예방,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친환경기술팀 강혜경 팀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 취약계층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2월부터 6개조 30여 명의 파쇄지원단이 6개 읍면을 돌며 영농부산물을 수거, 동력 파쇄기를 이용해 과수 전지 목 파쇄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도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피해도 커 사전방제가 중요하다. 이에 무주군은 관련 약제 무상 공급과 함께 수시 예찰과 교육을 진행한다.

이달 방제약제 협의회에서 약제를 선정하고 내달 방제약제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하면 1차 방제약제는 내달 2~4차 방제약제는 오는 4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은 60%, 예찰 조사 거부·방해·회피 시에는 40%, 예방 교육 미이수 시에는 20%가 감액됨에 따라 사과, 배 농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주=최의호 기자

자연특별시 무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박차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대기질이 우려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계절 관리 기간인 3월까지 공회전 단속을 비롯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기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대응 요령을 적극 공유, 실천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상황을 살피는 민간 감시단을 구성·운영한다. 농촌지역의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및 대기 배출사업장 단속도 강화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일상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이 자연특별시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든든한 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역 내 행정·공공기관 10곳이 공공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했으며 광역전처리시설 등 공공사업장 2곳,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34곳의 운영 시간을 단축했다.

도로 먼지 재비산 방지를 위해 진공노면 청소차를 추가로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서둘렀으며 미세먼지 신호등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메시지 전파로 미세먼지 노출 피해를 최소화했다.

주민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만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 신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선진지 견학 나서

임실군 신덕면이 지난 21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역량강화 일환으로 주민위원회와 주민대표 및 사업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강진군, 담양군 일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우수사례 선진지 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 활성화방안 및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현실적인 운영 사례를 들으며, 신덕면에 맞는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신덕면 주민들은 강진군 성전면 행복문화관을 방문해 거점시설을 견학하고 시설 운영 실태와 자립 운영 시 주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 민 군수는 "신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거점시설이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공간으로 활용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동광재활용산업, 순창군에 설 명절 맞이 500만원 기탁

㈜동광재활용산(대표 김양술)이 지난 22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동광재활용산업은 금과면 대각길에 위치한 건축자재 제조업체로,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등을 생산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양술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마련했다"면서"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탁 취지를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신 동광재활용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기탁해 주신 성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고창군산림조합, 인재 육성 장학금 5천만원 기탁

"군·지역주민에 받은 사랑, 환원 할 수 있어 기뻐"…2019년부터 지역인재육성 기여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에 고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건)이 고창인재 키우기 장학금 '5000만원' 기탁했다.

이달 23일 진행된 장학금 기탁식에는 김영건 조합장 등 임직원 9명이 참석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영건 조합장은 "고창군과 지역 주민에게 받은 사랑을 고창군의 미래 꿈나무들에게 환원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창군 장학재단에서 지역발전을 이끌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고창군장학재단에 고창군산림조합이 고창인재 키우기 장학금 '5000만원' 기탁했다.

심덕섭 이사장은 "고창군산림조합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지역인재를 향한 꾸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백년지대계인 교육발전은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고창을 이끌어 나갈 지역인재 육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산림조합은 2019년부터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새마을금고, 김 1,200상자 기부…희망나눔캠페인 동참

2천4백만원 상당 김·멸치 120박스 전해…"지역사회 위한 나눔 활동 계속 할 것"

남원시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21일 남원새마을금고에서 김 1,200상자(환가액 2,400만 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남원새마을금고는 매년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하나로 김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올해 역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김 나눔을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추가로 멸치 120박스를 함께 기부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남원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 성산면 숲에온어린이집, 지역사회에 성금 1백만원 전달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한 숲에온어린이집(원장 이성희)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22일 기탁식에 참석한 원아들과 선생님들은 어린이집의 벼룩시장(플리마켓) 수익금 등을 합쳐 총 100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 성금 전달은 나눔의 가치를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사랑 나눔 캠페인'의 하나이다.

성산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숲에온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생들에게 감사하며, 소중한 성금을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숲에온어린이집은 성금 기탁 외에도 2022년 성산면 최초의 착한어린이집에 가입해 정기기부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어버이날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건축사협회,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전달

익산건축사협회(회장 안영묵)는 23일 시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다이로움 나눔곳간에 전달된 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영묵 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회원들과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에 앞장서는 익산건축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분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익산건축사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익산건축사협회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과 연탄 배달 봉사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건강복지센터와 푸른익산가꾸기 사업, 사랑장학재단 등에 기부하며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용진읍 향뚝짬뽕, 매달 어르신에 짜장면 대접

완주군 용진읍에 소재한 향뚝짬뽕(대표 김진구)이 2023년 4월부터 매달 '짜장면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24일 용진읍에 따르면 향뚝짬뽕은 매달 셋째 주 화요일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 생활지원사들이 관리하는 홀몸어르신 등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300여 명에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대접하고 있다.

김진구 대표는 짜장면 나눔행사 외에도 지난 2021년부터 매월 용진읍 저소득 3가구에 15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것은 책임이자 기쁨이라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향뚝짬뽕 짜장면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주은화학교 치과의사 3인, '엄마의 밥상' 5백만 원 후원

전주시는 23일 전주은화학교 구강보건실에서 봉사 중인 치과의사 3명(조상기, 이화준, 이은희)이 설 명절을 맞아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전주은화학교 구강보건실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치과의사 3인이 주도한 것으로,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뜻을 모아 성사됐다.

이와 관련 전주은화학교 구강보건실 봉사 치과의사 3인은 '행복한 동행 봉사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꾸준한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다년간 은화학교 전교생의 구강 진료를 꾸준히 관리하는 등 장애 학생의 구강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지역 주민과 단체가 함께하는 나눔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전주시의 따뜻한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장수군생활개선회, 사랑의 쌀국수 80상자 기탁

장수군은 장수군생활개선회(회장 김윤희)가 23일 설명절을 앞두고 군청에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쌀국수 80상자를 장수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장수군생활개선회는 농촌생활의 질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 생활문화를 실천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농어촌 여성단체이다.

특히 매년 이웃 돕기를 위한 성금 기탁과 현물 지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장수군 생활개선회에 감사드린다"며 "후원해주신 쌀국수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삼계면 청년회, 화재피해 농가 현장 찾아 봉사활동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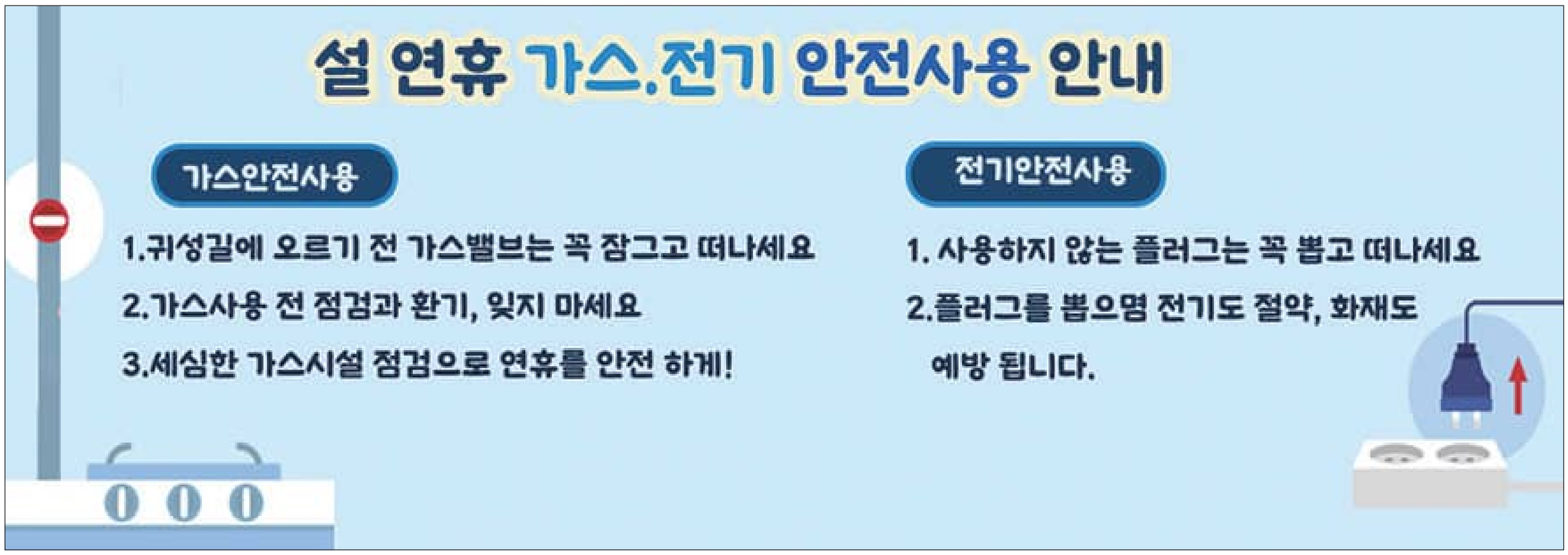
임실 삼계면 지역사회단체인 삼계면 청년회가 지난 22일 삼계면 삼은리 화재 피해 농가 현장을 찾아 전소된 주택을 해체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화재는 농가 부엌 아궁이 과열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주택 전체가 전소돼 남은 잔재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삼계면 청년회 및 자율방범대 회원 23명은 화재 현장을 찾아 주변환경 정리를 하는 등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임실군은 이번 화재 피해 농가에 대해 피해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一事一言〉

'자유우파'라는 이름의 '망상 공동체'(3)

유시민
작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충돌한다. 촛불시위는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종전협정, 연방제 통일을 외치고 태극기 세력은 문재인·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 통일을 주장한다. 북한 간첩들이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고 빌딩에 올라가 촛불시위대를 저격한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총을 빼앗아 경찰을 공격한다. 북한이 전국에 구축해 둔 지하 조직이 좌익 성향 국민을 선동해 전국 동시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과 조선족 백만 명이 가세한다. 그들은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하고 내전을 일으킨다. 북한 특수부대가 걷잡을 수 없이 혼란해진 대한민국을 침략한다. 좌경화된 국민은 김정은을 환영해 연방제 통일을 이룬다. 1946년 대구 폭동에서 시작해 제주 4.3, 여순반란, 5.18광주로 이어진 북한의 공작을 완성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자유 시민 천만 명을 학살한다. 천만 명은 보트 피플이 되어 일본으로 탈출한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권교체를 이루지 않았으면 벌써 일어났을 일이다. 일본 국회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민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것이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상황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라도 촛불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1년 전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찔렀던 김진성이 그런 사람이었다. 윤석열도 그런 사람이다. 언론의 펜으로 죽이지 못했고 김진성의 칼로 죽이지 못했으며 한동훈의 법으로도 죽이지 못했던 이재명과 민주당을 제거하려고 윤석열은 특전사와 HID의 무장병력을 동원했다.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를 해산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 칼을 뽑은 김에 한동훈과 일부 판사들까지 해치우려 했다. 윤석열과 똑같은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온오프라인에서 교신하고 협력하면서 스스로를 '자유 우파'라고 한다.

전광훈이 '자유 우파의 5대 유튜브'라고 한 고성국TV·전광훈TV·이봉규TV·신의한수·펜앤드마이크TV의 구독자는 최소 20만 최대 160만, 최근 업로드한 동영상의 첫 24시간 재생회수는 최소 10만 최대 100만 회 정도다.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라는 가상현실을 전파하는 미디어는 그밖에도 많다. 성창경TV나 배승희변호사 등 널리 알려진 유튜브 방송은 구독자가 백만이 넘으며 유명하지 않은 유튜브 방송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들이 '자유 우파라는 망상공동체'의 1선 공격수다. 2선에는 〈뉴데일리〉 〈데일리안〉 〈스카이데일리〉 같은 극우성향 인터넷 언론이 있다. '망상 공동체'의 바깥 경계 완충지대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 〈한국경제〉를 비롯해 '레거시 언론'이라고 콧대를 세우는 보수 언론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을 세우고 지켰던 미디어 생태계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 생태계를 혼돈에 빠뜨렸다. 극우 유튜버들은 윤석열의 내란을 공개 찬양하면서 후원금을 모으고 광고 수입을 불리는 데 혈안이 되었다. 극우 인터넷 언론은 여전히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발 하나를 뺐다. 보수 언론은 '중립'과 '균형'을 내세워 내란세력과 야당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제공하면서 생존을 도모하는 중이다. 그들은 윤석열이 자기네 말을 듣지 않고 1선의 '수준 낮은 극우 유튜버'를 추종한 탓에 망했다고 본다. 윤석열의 자리에 다른 보수 정치인을 갈아 끼우기 위해 앞으로는 이재명을 흠집 내는 작업에 집중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 '자유 우파'는 '망상의 공동체'다. 그들은 미친 게 아니라 위험하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배척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여기는 사상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비록 소수라고 해도 다수가 망상으로 간주하는 생각이라도, 무엇이든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관용의 땅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의 관용이 선은 아니다. 예외가 하나 있다. 불관용이다.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최악의 불관용은 물리적 폭력으로 이견 집단을 배제하고 말살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바로 그 짓을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대의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진영을 제거하려 했다.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저지른 윤석열 지지자들의 행위도 똑같은 것이었다. 관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자유 우파의 5대 유튜브' 운영자들은 비상계엄을 찬양하고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했으며 공수처와 법원에 대한 공격을 선동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그들의 말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칼럼을 썼다. 나는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아무도 폭력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하겠지만, 대통령이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추종자들이 폭력으로 법원을 짓밟는 상황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내란 선전 또는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설날 아침 단상 - 복 짓는 한 해가 되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명절을 맞아 독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양극화의 심화,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큰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찾고, 복을 짓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복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잡보장경(雜寶藏經)에서는 돈이 들지 않고도 복을 짓는 일곱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드러운 얼굴로 베풀고(和顔施), 좋은 말씨로 베풀고(言辭施),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고(心施), 좋은 눈빛으로 베풀고(眼施), 지시할 때도 부드럽게 하고(指施), 앉을 자리를 배려하며(狀座施), 쉴 공간을 내주는(房舍施)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배려와 나눔이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며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종종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인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물질적인 부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도 해석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진 것조차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복을 짓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의 시작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 복을 짓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의 마음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올바른 판단과 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며, 이성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진실과 상식에 기반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생전에 DJ는 "나쁜 정치를 보면 행동에 나서고 행동에 나서지 못하면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설파했습니다.

설 명절은 모처럼 가족과 친지가 함께 하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복을 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복을 나누고,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첫날,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화재열전

김기서 강학당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교육기관, 서당
-지정일 - 1981년 4월 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9번지

▲오늘의 시

설날 아침에 / 박노해

설날은 해가 뜨지 않아도 좋다
집집마다 가슴마다
해가 솟아날 테니
설날은 까치가 울지 않아도 좋다

골목마다 새해 인사
울려 퍼질 테니
설날은 발갛게 꽁꽁 추워도 좋다
이웃들을 돌아보는 인정이

따뜻할 테니
설날은 새 옷이 아니어도 좋다
묵은 옷 빨아 입고
새 뜻 새 희망이 푸르를 테니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선린상고를 다니며 주경야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다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백만 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이후 '얼굴 없는 시인'으로 세상에 알려지며 시를 발표하고 7년여 동안 수배생활을 했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월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김관춘 |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 군산지국 010-8641-7942 | 무주지국 010-6411-0835 |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임실지국 010-8642-6502 |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 익산지국 010-9560-3075 | 진안지국 010-2433-1721 |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경제중심지 도약

◆ 2024년 이차전지 분야 · 바이오 기술 · 디지털 산업 성과와 도약 전략
◆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첨단기술 중심 미래산업 육성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해 바이오, 이차전지, 디지털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경제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첨단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 디지털산업 혁신을 통해 전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 2024년 주요 성과: 첨단산업 육성 기반 강화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실시간 고도분석센터(369억 원)와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84억 원) 등 연구인프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새만금 특화분야(광물가공·리싸이클링) 초격차 기술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R&D혁신허브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서는 바이오 기업 30개사를 유치하며 레드바이오 전용펀드(1,274억 원)를 결성했다. 또한,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와 메카노바이오 실증센터를 개소해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높였다.

디지털산업의 경우, 전북형 디지털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와 AI융합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다. 특히, 농식품 메타버스 기술 실증사업을 통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했다.

■ 2025년 중점 추진 과제

전북자치도는 2025년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이차전지 대학원 설립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핵심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차전지 벤처펀드 확대 조성과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중심의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바이오 기업 150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학·연·병·관이 협력하는 전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 얼라이언스 추진단을 운영한다. 또한,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200억원 지원하고,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레드바이오 분야 (의약품·의료기기)기업 육성을 위해 1,274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더불어 「전북형 디지털혁신거점」을 구축하고 IT / SW기업 취·창업 연계 전문인재 양성,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산업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형 디지털거버넌스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력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미래산업 육성의 기대효과

이차전지, 바이오, 디지털산업의 발전은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산업 다변화를 통해 전북은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은 이제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2025년에도 도민과 함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편집=정혜민 기자

"도전 없이는 변화도 없다" 김관영 지사의 혁신 메시지

▶ 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방향
▶ 김관영 도지사가 말하는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

"2025년은 전북이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육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

이차전지, 바이오, 디지털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룬 전북은 이제 2025을 맞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Q. 전북이 2024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2024년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다진 해였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과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기반이 강화됐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30개 기업을 유치하며 첨단바이오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산업에서도 전북형 디지털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전통산업(농생명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전북이 첨단산업 중심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Q. 이차전지 산업은 전북의 핵심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이차전지 산업은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새만금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카이스트 이차전지 대학원을 설립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은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와 재활용의 허브로 도약할 것입니다.

Q. 바이오산업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 분야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A. 바이오산업은 전북의 강점인 그린바이오를 기반으로, 레드바이오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개의 바이오 기업 유치를 목표로 R&D 지원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소재 의료기기센터와 메카노바이오 센터를 통해 첨단 의료기술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Q. 2025년은 전북이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절을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우선, 도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따뜻한 설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전북이 더욱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차전지, 바이오, 디지털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전북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도정의 목표는 언제나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변화와 도전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전북은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협력이 있다면, 전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